어려운 환경속에서 결혼을 축하해주려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특히 멋지고 예쁜 아들과 딸을 키워주신 두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. 주인공들의 밝은 얼굴이 행복한 미래를 보여주는군요. 축하드립니다.

새로운 삶에 적응하면서 주위도 돌아보고 먼 세계도 살펴보기 바랍니다.

저도 30년 전에 환하게 웃으며 입장을 했던 생각을 하니 이 순간 행복합니다. 지금은 좋은 것이 많이 보이지만 점점 나쁜 것도 보일 것입니다.

살아보니

나도 옳고 상대도 옳은 것이 있고 나도 틀리고 상대도 틀리는 것도 있더군요. 모든 것을 이기려고만 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. 적당히 이기고 적절하게 져주어야 저만큼 도망치는 행복을 잡을 수 있습니다.

어디에 있는지도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행복을 기다리지만 말고

지금부터 나부터 꾸준하게 행복을 만들며 살기 바랍니다.

행복을 만들려는 욕심쟁이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

둘 다 다음 노래를 잘 듣고 문제에 답하세요

... 너무 아껴하지 말기

서로에게 상처 받았던 일들 <u>그 자리에서 다 털어놓기</u> 우리끼린 절대 비밀이 없기

다투고 토라졌을때 먼저 말 걸어주고 미안하다 말하기 사랑한다고 날 좋아한다고 너무 보고 싶다고 수도 없이 말해주기 서로에게 감동 받았던 일들 마음 속 깊이 감사해 하기 내가 잘해주는 만큼 나에게 더 잘해주기

헤어지자는 말은 평생 꺼내지도 말기

지금까지 굳게 맺었던 약속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기 내가 사랑하는 만큼 더욱 더 날 사랑하기

멋진 준상 신랑!

첫 문단 **상처 받은 것은 <u>그 자리에서 다 털어놓기</u>** 라고 하던데 지킬 자신 있습니까?

대답이 적습니다.

지킬 자신 있습니까?

이렇게 씩씩하고 훌륭한 아들을 키워주신 가족과 친척들에게 박수!!!

예쁜 예미 신부!

두 번째 문단 다투고 토라졌을 때 <u>먼저 말 걸어주고 미안하다 말하기</u>가 나오던데 실천하시겠습니까?

대답봐라! 실천하시겠습니까?

이런 신부를 낳고 키워준 부모와 그 지역사회에도 박수를!!!

임준상!

안예미!

나를 보고 대답을 하세요.

마지막 문단 <u>헤어지자는 말은 평생 꺼내지도 말기</u> 두 사람 모두 지키겠습니까?

그럼 확약을 위해 꼭 껴안아주세요.

감사합니다.

2020-07-11 안상구